

Under-Wear의 착용감과 착용방법에 관한 연구

林 珣

인천대학교 의생활학과 부교수

A Study of the Wearing Sensation and Wearing Way of the Under Wear

Soon Im

Associate Professor,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University of Incheon

目 次

Abstract	1. 조사대상자의 특성
I. 서 론	2. 착용감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
II. 연구방법	3. 속옷의 종류에 따른 소재 구성
1. 조사방법	4. 상·하의의 착용방법
2. 연구내용	5. 속옷의 개수
3. 자료분석 방법	IV. 결론 및 제언
III. 연구결과 및 고찰	참고문헌

Abstract

This paper is based on a survey of consumers' opinions on underwears. The questions in the survey dealt with what materials were used to manufacture underwears, which underwears were worn together in combinations, and how comfortable underwears were. In addition, the respondents were asked about how many pieces of different underwears they possess. Through such research, this paper aims to provide a guide to manufacturing domestic underwears that are competitive against foreign brands. 336 women in their twenties, thirties, forties and fifties from Seoul and its suburbs were surveyed.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by calculating the average, frequency and standard deviation, and through one-way analysis and the Duncan test.

The following are the results of the study :

1. Consumers were moderately satisfied with Korean-made underwears. In order to compete with foreign brands, products with high consumer-satisfaction levels must be produced.
2. Upper garments usually consisted of brassieres with shoulder straps and sleeveless shirts.

이 논문은 1998년 인천대학교 교내 연구비에 의해 수행되었음

For lower underwears, most people tended to wear panties under girdle, with garlets on top. This is most likely the result of more people wearing slacks than skirts.

3. Consumer in their twenties had an average of 1.71 slips, while those in their thirties had 3.07, those in their forties had 3.25, and people in their fifties had 3.88 slips. Thus the number of slips a consumer possesses increases as age increases. For socks, people in their twenties had 7.4 pairs on average, those in their thirties had 5.5, those in their forties had 6.7, and those in their fifties had 5.3. Thus, those in their twenties possessed the most number of socks. Consumers in their twenties also had the largest proportion of socks among all the types of hosiery combined, with 47.1% of their hosiery being socks.
4. Consumers did tend to prefer cotton underwears, but according to the type of underwears, products using mixed fabrics of cotton and synthetic fibers were also frequently worn.
5. The shape and form of underwear that consumers prefer in a certain time frame varies according to the latest fashion in outer wear. Therefore, planning design of underwear products by predicting the future trend of outer wear fashion is necessary.

I. 서론

속옷시장의 세분화, 다양화, 전문화 양상이 갈수록 뚜렷해지는 가운데 국산 속옷 시장의 매출액 규모도 1조 이상의 거대한 시장으로 부상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내의 3사(BYC, 쌍방울, 태창), 란제리 3사(남영, 신영, 태평양 패션)등 패션업체의 신제품 개발과 마케팅의 새로운 concept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J사인 경우 패션내의를 표방하여 보수적 이미지 탈변도의 내의 시장에 캐릭터 개념을 도입, 내의시장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내의가 단순히 속옷이라는 개념에서 겉옷과 속옷의 겸용 Fashion경향, 고품질, 고부가가치의 상품으로 바뀐에 따라 디자인, 색깔뿐 아니라 소재 및 착용방법에서 다양한 변화를 예측케 하고 있다.

Hollies¹⁾ 등에 의하면 천연 또는 합성섬유에 상관없이 흡습성이 있는 섬유가 쾌적한 착용감의 최대인자라고 하였다. 이러한 Hollies의 연구결과는 소수성 섬유의 형태적 구조를 변화시켜 효과적인 수분 방출 특성을 부여할 경우 쾌적성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으며 종전의 속옷 소재로써 주로 사용되었던 면 섬유뿐 아니라 첨단 신 소재가 속옷 소재로써 사용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면 섬유가 국내에서 거의 생산되지 못하여 면섬유만의 제품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이 가능한 화학 섬유와 면섬유와의 혼

방 제품이 일반화 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Hollies의 연구가 속옷 소재의 새로운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

소재면에서의 변화뿐 아니라 속옷과 겉옷 겸용의 Fashion 경향은 속옷 착용방법에도 상당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속옷의 크기, 형태면에서의 적합성, Design 개발 및 우리나라 체형에 맞는 치수 개발을 요구하는 실정이다.

지금까지의 속옷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정²⁾에 의한 속옷 상표에 대한 소비자의 수용태도 및 한³⁾에 의한 속옷 명칭에 대한 용어설정 및 김⁴⁾의 역사학적인 측면에서의 속옷 연구 등이 있으나 착용 방법 및 속옷 종류에 따른 소비자의 만족·불만족 및 소재구성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판되고 있는 속옷 소재종류에 따른 착용감 및 착용방법, 형태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값 비싼 외국산울 능가할 수 있는 국산 속옷 제조에 도움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연구방법

1. 조사 방법

본 연구는 서울 및 서울 근교에 살고 있는 20~50 대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1997년 3월부터 1998년 5월까지 실시하였다. 먼저 2차에 걸친 예비조사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수정·보완하여 조사를 착수하였는데, 조사는 서울 시내 및 서울 근

교 대학의 학생과 학부형을 대상으로 하여 자기 작성 설문지법으로 하였다. 설문지는 총 700여부를 배부하여 390부가 회수되었다. 본인이 작성하는 설문 내용이지만 배부한 곳에서 답하기가 힘들어 집에 가서 조사해야 했으므로 회수율은 극히 낮았다. 회수된 390부 중에서 불완전한 자료를 제외한 336부가 본 연구의 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조사 내용은 設問紙法에 의해 속옷에 대한 착용감 반응을 조사하였는데 조사 방법은 아주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보통이다-그렇다-아주 그렇다 의 5단계로 하였다. 또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속옷의 상·하의를 조사하여 소유하고 있는 속옷의 종류와 재료명 및 착의 방법을 피부면에 가까운 순서로 기입토록 하였다.

2. 연구 내용

본 연구는 국산 속옷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품질의 속옷 제작과 한국인 체형에 적합한 속옷 제작을 위함이다. 그러므로, 속옷의 활동 성능, 장식 성능, 실용 성능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을 조사하기 위하여 14항목을 조사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냉·온 촉감의 정도 ② 치수의 적합성 ③ 형태 만족의 정도 ④ 형태의 보지성 ⑤ 의관 ⑥ 피부에 주는 자극성 ⑦ 옷을 입었을 때의 밀착성 ⑧ 땀의 흡습성 ⑨ 정전기에 의한 불쾌감 ⑩ 세탁에 의한 오염 탈락 ⑪ 천의 내구성 ⑫ 바느질의 파손 ⑬ 디자인 ⑭ 종합적 평가 착용방법 및 착용순서, 소유갯수를 알기 위하여 여성 속옷을 ① 속옷 상의(그림 A,B,C,D) ② 브래지어(그

림 E,F,G) ③ 속옷 하의(그림 H,I,J) ④ 거들류(그림 K,L,M) ⑤ Slip류(그림 N,O,P) ⑥ 스타킹·양말류(그림 Q,R,S,T)로 <그림 1>과 같이 6가지로 크게 나누었다. 재료별 표시는 면, 레이온, 아세타이트, 합성섬유, 면 + 아세타이트 + 레이온, 면 + 나일론 또는 나일론 이외의 합성섬유로 나누어서 기입토록 하였다.

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PC+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착의 방법은 상·하의로 나누어 착의 방법을 조사하여 빈도수를 백분율로 구하였고 착용감은 연령에 따라 각 항목별로 분산분석과 던컨 테스트를 하였다. 소유 개수는 종류별로 분류하여 연령별로 소유 개수를 조사하였고 속옷 종류에 대한 Type별 소유 개수를 전체소유 개수에 대하여 백분율로 나타냈다.

Ⅲ. 연구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특성

속옷의 종류 및 착용방법에 따른 소비자의 반응을 조사하기 위하여 20~50 대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사 응답자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연령 분포에 있어서는 20대가 29.8%, 30대가 25.3%, 40대가 26.8%, 50대가 18.2%로 연령별 고른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51.1%, 대졸이 38.2%, 대학원졸이 4.0%를

상의류속옷				브래지어류		속옷하의류			
									
A	B	C	D	E	F	G	H	I	J
거들류			슬립류			스타킹 및 양말류			
									
K	L	M	N	O	P	Q	R	S	T

<그림 1> 속옷의 종류

<표 1> 조사대상자의 특성

	구 분	빈 도 수	빈도율(%)
연령	20~29	100	29.8
	30~39	85	25.3
	40~49	90	26.8
	50~59	61	18.2
소득	100만원 이하	55	16.3
	100~200 만원	129	38.4
	200~300 만원	100	29.7
	300 만원 이상	52	15.6
직업	주부	163	48.5
	학생	78	23.3
	회사원	22	6.4
	교사	17	5.2
	공무원	21	6.1
	자유업	35	10.4
학력	중졸이하	23	6.8
	고졸	172	51.1
	대졸	128	38.2
	대학원	13	4.0

나타내고 있다. 소득 수준은 100~200 만원이 38.4%, 200~300 만원이 29.7%로 중산층 계급이 68.1%를 나타내고 있다.

2. 착용감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

<표 2>는 착용시 착용감에 대한 소비자 반응의 ANOVA Test이다. 속옷을 입었을 때의 자극성에 대해서는 20대가 2.35, 30대가 2.26, 40대가 2.38, 50대가 2.64로 자극을 느끼지 않는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으며 5% 내에서의 연령간 유의적인 차를 보이고 있다. 속옷을 입었을 때의 답답한 느낌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20대가 2.77, 30대가 2.84, 40대가 2.81, 50대가 2.67로 답답하지 않는다 쪽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으며 연령간 유의적인 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착용시 구김에 대한 만족도에서도 20대가 2.59, 30대가 2.71, 40대가 2.62, 50대가 2.75로 구김이 가지 않는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으며 연령간 유의적인 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정전기 발생에 대하여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0.1%내에서 유의적인 차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연령이 많을수록 다양한 소재의 적용력이 낮음을 보이는 결과라 사료된다.

세탁 후의 형태변화에 대해서는 20대가 2.86, 30대가 2.98, 40대가 3.09, 50대가 2.85로 보통 또는 변화하지 않는다는 쪽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으며 세탁에 의한 오염 탈락도 부분에서도 연령 구분없이 3.30이상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세탁후의 형태 안정성은 다른 옷에 비해 세탁횟수가 많은 속옷에서는 중요한 성능으로 간주할 때보다 높은 만족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속옷의 봉제 강도 및 수명에 대해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바느질 부분이 잘 뜯어진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것은 젊은층에서는 바느질에 손상이 일어나기 전에 새로운 것을 구매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속옷의 수명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20대는 3.01, 30대는 3.18, 40는 3.17, 50대는 2.85로 30, 40대가 보통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낸 반면 20대와 50대는 30, 40대보다 낮은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다.

디자인 및 종합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3.0~3.2의 보통수준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연령간 유의적인 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맘의 흡수성은 20대가 3.48, 30대가 3.42, 40대가 3.21, 50대가 3.23로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첫수 적합성에서는 20대가 3.21, 30대가 3.38, 40대가 3.17, 50대가 3.23로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이상의 것을 종합하여 볼 때 우리 나라 속옷은 소비자에게 기본적인 만족도는 주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나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생산을 위해서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3. 속옷 종류에 따른 소재 구성

<표 3>은 속옷종류에 따른 소재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셔츠 및 팬티류는 면 제품을 선호하고 있으나 면과 합성섬유의 혼방제품 및 레이온제품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래지어류는 면과 합성섬유의 혼방제품 및 면

〈표 2〉 착용시 연령에 따른 소비자반응의 ANOVA Test

항 목	Age	Mean	S,D	F-value	Duncan test
구김이 잘 잡니까	20	2.59	0.73	0.56	
	30	2.71	0.84		
	40	2.62	0.76		
	50	2.75	0.89		
속옷을 입었을 때 몸에 자극이 있습니까?	20	2.35	0.68	3.91**	A
	30	2.26	0.64		A
	40	2.38	0.70		A
	50	2.64	0.73		B
속옷을 입었을 때 답답한 느낌이 드십니까?	20	2.77	0.80	0.53	
	30	2.84	0.87		
	40	2.81	0.85		
	50	2.67	0.75		
속옷을 입었을 때 시원한 느낌이 드십니까?	20	2.85	0.71	1.66	
	30	2.87	0.75		
	40	2.99	0.65		
	50	3.08	0.84		
땀이 잘 흡수됩니까?	20	3.48	0.63	5.50***	BC
	30	3.42	0.76		AB
	40	3.21	0.85		A
	50	3.68	0.50		C
옷을 입고 벗을 때 정전기가 일어납니까?	20	2.41	0.74	7.58***	A
	30	2.54	0.91		AB
	40	2.73	0.89		B
	50	3.05	0.95		C
세탁시 때가 잘 빠집니까?	20	3.32	0.74	0.60	
	30	3.33	0.73		
	40	3.45	0.76		
	50	3.35	0.82		
모양이 세탁 후에도 변하지 않습니까?	20	2.86	0.84	1.35	
	30	2.98	0.93		
	40	3.09	0.89		
	50	2.85	0.90		

<표 2> 계속

항 목	Age	Mean	S.D	F-value	Duncan test
세탁 후 부푸러기가 생깁니까?	20	2.77	0.87	1.88	
	30	2.92	0.93		
	40	2.72	0.84		
	50	3.03	0.97		
속옷의 수명이 오래 갑니까?	20	3.01	0.74	2.62*	AB
	30	3.18	0.83		B
	40	3.17	0.83		B
	50	2.85	0.80		A
바느질 부분이 잘 뜰어집니까?	20	2.87	0.89	5.45***	A
	30	3.02	0.95		A
	40	3.10	0.84		A
	50	3.47	0.93		B
속옷의 컷수가 당신 몸에 잘 맞습니까?	20	3.21	0.80	1.20	
	30	3.38	0.72		
	40	3.17	0.84		
	50	3.23	0.72		
디자인이 마음에 드십니까?	20	3.04	0.68	1.20	
	30	3.25	0.69		
	40	3.19	0.85		
	50	3.11	0.55		
종합적으로 당신이 입고 있는 속옷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20	3.12	0.56	0.71	
	30	3.21	0.58		
	40	3.15	0.53		
	50	3.23	0.62		

섬유 제품을 주로 착용하고 있으며 면+아세테이트, 레이온의 혼방제품 및 합성섬유 제품도 착용하고 있다. 또한, 슬립류는 레이온류를 선호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소재로 구성된 제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다른 속옷에 비해 슬립류는 디자인적인 면이 중시되고 외출시에만 착용하게 되므로 속옷이 가져야 할 위생적인 특성이 우선적인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이상의 것으로 고찰해 보면 속옷의 소재로서 면섬유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신소재 개발로 말미암아 면과 합성섬유의 혼방제품도 일반화되고 있는 경향이 됨에 따라 소수성 섬유의 형태적 구조를 변화시켜 효과적인 수분방출 특성을 부여할 경우 쾌적성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 Hollies 이론에 따라 종전의 속옷소재로써 사용

되었던 면섬유 뿐아니라 첨단 신소재도 속옷의 소재로써 충분히 실용화될 수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4. 상·하의의 착용방법

표 4-1, 4-2, 4-3, 4-4, 4-5는 상·하의 착용방법과 연령에 따른 착용방법의 빈도수를 백분율로 나타낸 표이다. 상의의 착용방법에서는 브라지와 속옷상의가 20대에서 75.8%, 30대에서는 74.6%인 반면 40대·50대로 오면서 64.9%, 52.4%로 감소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것은 표 4-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40대, 50대로 오면서 Slip류의 착용율이 20대의 9.9%에 비해 26.0%, 31.0%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하의의 착용방법은 20대에서 팬티→양말 또는 팬티→거들→양말을 신는 비율이 45.8%로 스타킹류 보다는 양말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구두 헛손의 경향인 통굽 구두의 유행이 젊은층에게 유행됨은 물론 운동화에 있어서도 굽이 높은 운동화가 선호되는 결과로 보여진다. 또한, 스커트의 착용보다 바지 착용이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도 원인이라고 사료된다. 팬티→스타킹의 하의 착용방법에서는 20대는 12.8%, 30대는 31.3%, 40대는 22.0%, 50대가 26.7%로 30대 이후는 양말의 착용보다는 스타킹의 착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팬티→거들→스타킹의 착용방법에서도 20대가 15.0%인 반면 30대가 26.4%, 40대가 38.4%, 50대가 26.7%로 하의의 착용방법도 20대와 30대 이후의 착용방법의 차이가 보이고 있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20대와 30대 이후는 상·하의 착용방법에서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20대는 상의에서 브라지와 셔츠류를 선호하는 반면 30대 이후는 Slip류의 착용이 크게 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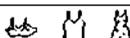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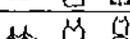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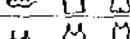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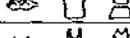
<표 4-1> 브라지어·속옷상의

(단위 : %)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착용 방법	 E-A	38.5	33.3	23.4	7.1
	 E-B	28.6	34.9	33.8	31.0
	 E-C	3.3	4.8	3.9	0
	 E-D	2.2	0	1.3	7.1
	 F-A	3.3	1.6	1.3	0
	합 계	75.8	74.6	64.9	52.4

<표 4-2> 브라지어·속옷상의·슬립

(단위 : %)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착용 방법	 E-A-N	5.5	4.8	6.5	4.8
	 E-A-O	3.3	1.6	0	9.5
	 E-A-P	1.1	0	5.2	2.4
	 E-B-O	0	0	10.4	7.1
	 E-B-P	0	0	3.9	7.1
	합 계	9.9	6.3	26.0	31.0

<표 4-3> 팬티-거들 및 양말

(단위 : %)

착용 방법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I-T	14.9	2.5	2.4	5.0
		J-T	4.3	3.8	3.4	0
		I-K-T	10.6	1.3	0	0
		I-L-T	9.6	6.3	2.4	6.7
		J-K-T	6.4	2.5	0	0
합 계			45.8	16.4	8.2	11.7

<표 4-4> 팬티-스타킹

(단위 : %)

착용 방법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I-T	8.5	2.5	1.2	1.7
		I-R	0	5.0	4.8	6.7
		I-Q	4.3	10.0	16.0	15.0
		J-Q	0	13.8	0	3.3
합 계			12.8	31.3	22.0	26.7

<표 4-5> 팬티-거들-스타킹 및 양말

(단위 : %)

착용 방법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I-K-Q	8.5	2.5	8.4	0
		I-L-Q	0	2.5	9.6	5.0
		I-K-R	0	1.3	4.8	0
		I-L-T	0	5.0	4.8	3.3
		I-L-Q	4.3	5.0	2.4	1.7
		J-L-Q	1.1	3.8	3.6	3.3
		J-L-T	0	1.3	2.4	5.0
		J-K-T	0	0	0	6.7
		J-K-S	1.1	5.0	2.4	1.7
합 계			15.0	26.4	38.4	26.7

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30대 이후 하의의 착용방법에서 스타킹이 양말 착용율보다 크게 나타나는 것과는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결과로써, 속옷도 겉옷의 Fashion경향에 따라 변화되는 물론 연령에 있어서도 상이하게 나타나므로 겉옷과 같이 소비자 대상자의 착용방법을 알고 제품생산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5. 속옷의 개수

이 <표 5-1>은 연령에 따른 상의속옷의 소유개수와 평균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팔이 달리지 않는 A, B type은 전체 상의 소유개수에 대한 비율이 20대가 73.9%, 30대가 79.9%, 40대가 69.5%, 50대가 66.5%로 70% 내외의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팔이 달린 D type은 50대에 있어서의 20.2%를 보이고 있으나 20·30·40대에는 10% 내외의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소유개수는 20대가 6.88벌, 30대가 5.79벌, 40대가 7.9벌을 나타내고 있고 50대는 8.19벌로 40~50대가 20~30대보다 소유개수가 많게 나타나고 있다.

<표 5-2>는 브래지어의 소유개수와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끈이 달린 E type을 연령에 관계없이 많이 갖고 있었으며 그 소유개수는 20대가 4.63, 30대가 4.20, 40대가 4.45, 50대가 3.57벌로 4벌 내외를 가지고 있다. 또한, 끈이 없는 브래지어의 소유개수는 1개 이하를 보이고 있어 끈이 없는 브래지어는 가슴의 볼륨과 처진 가슴을 받

쳐주기에는 아직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 5-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J type과 같은 부인용 스타일은 20대가 37.2%, 30대가 44.6%, 40대가 39.7%, 50대가 53.9%이며 소유개수는 20대에서 3.30벌, 30대에서 3.31벌, 40대에서 3.53벌, 50대에서 4.75벌로 20대보다는 50대가 소유개수 및 전체 소유개수에 대한 J Type안분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슬립종류에 따른 평균 소유개수는 30대 이후의 여성은 평균 소유개수가 3~3.9벌로 20대 평균 소유개수인 1.7벌보다 높게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30대 이후의 착용방법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양말의 소유개수는 20대가 7.4개, 30대가 5.5개, 40대가 6.7개, 50대가 5.3개로 20대에서 양말의 소유개수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또한, 양말·스타킹류의 전체 소유개수에 대한 양말의 소유비율이 20대에서는 47.1%에 비해 30대는 32.1%, 40대는 28.0%, 50대는 29.2%로 20대에서 양말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것은 하의의 착용율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0대에서의 stacks의 착용율이 높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IV. 결론 및 제언

냉·난방 시설이 일반화되고 있는 요즈음에 와서 의복이 추위와 더위에 인체를 보호하는 수단으로써 보다는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보이려는

연령에 따른 속옷의 소유개수 및 그의 안분비율

<표 5-1> 속옷상의류

연령	속옷의 종류	20대		30대		40대		50대	
		소유개수	비율(%)	소유개수	비율(%)	소유개수	비율(%)	소유개수	비율(%)
	A	2.79	40.6	2.59	44.7	3.04	38.5	3.05	37.2
	B	2.29	33.3	2.04	35.2	2.45	31.0	2.40	29.3
	C	1.21	17.6	0.64	11.1	1.41	17.9	1.09	13.3
	D	0.59	8.6	0.52	9.0	1.0	12.6	1.65	20.2
	합계	6.88	100.0	5.79	100.0	7.90	100.0	8.19	100.0

<표 5-2> 브래지어류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속옷의 종류	소유개수 및 그 외 비율	소유개수	비율 (%)	소유개수	비율 (%)	소유개수	비율 (%)	소유개수	비율 (%)
		 E	4.63	76.2	4.20	83.7	4.45	74.9	3.57
 F	0.84	13.8	0.48	9.6	0.87	14.7	0.57	11.8	
 G	0.61	10.0	0.34	6.7	0.62	10.4	0.66	113.8	
합계		6.08	100.0	5.02	100.0	5.94	100.0	4.80	100.0

<표 5-3> 팬티류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속옷의 종류	소유개수 및 그 외 비율	소유개수	비율 (%)	소유개수	비율 (%)	소유개수	비율 (%)	소유개수	비율 (%)
		 H	0.10	1.2	0.04	0.5	0.08	0.9	0.38
 I	5.0	59.6	4.07	54.9	5.29	59.4	3.68	41.8	
 J	3.30	39.2	3.31	44.6	3.53	39.7	4.75	53.9	
합계		8.41	100.0	7.42	100.0	8.90	100.0	8.81	100.0

<표 5-4> 거들류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속옷의 종류	소유개수 및 그 외 비율	소유개수	비율 (%)	소유개수	비율 (%)	소유개수	비율 (%)	소유개수	비율 (%)
		 K	1.73	40.3	0.92	32.1	1.22	34.4	1.14
 L	1.40	32.6	0.93	32.4	1.35	38.0	1.29	41.8	
 M	1.16	27.1	1.02	35.5	0.98	27.6	0.66	21.3	
합계		4.29	100.0	2.87	100.0	3.55	100.0	3.09	100.0

장식적 기능과 자기의 신분과 위치를 나타내는 사회적 역할로서의 기능이 더해 가는 추세이다.

그러므로, 소재의 중량과 두께는 가볍고 얇아지고, 불투명한 옷감에서 투명한 옷감 사용이 증가하였으며, 속옷·겉옷 겸용의 Fashion경향과 함께 속옷·겉옷 개념이 불분명해지고 있어 속옷

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1세기를 다가가는 지금 섬유 패션산업은 세계화의 물결속에서 무한한 가능성과 치열한 경쟁을 동시에 직면하고 있으며 날로 확대되어 갈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 기업의 국내 진출은 국내의 다른 산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섬유·패

<표 5-5> 슬립류

연령	소유개수 및 그의 비율	20대		30대		40대		50대	
		소유 개수	비율 (%)	소유 개수	비율 (%)	소유 개수	비율 (%)	소유 개수	비율 (%)
속옷의 종류									
	N	0.78	45.6	1.13	36.8	1.30	40.0	1.53	39.4
	O	0.73	42.7	1.04	33.8	1.35	41.5	1.57	40.5
	P	0.20	11.7	0.90	29.4	0.60	18.5	0.78	20.10
합 계		1.71	100.0	3.07	100.0	3.25	100.0	3.88	100.0

<표 5-6> 스타킹·양말류

연령	소유개수 및 그의 비율	20대		30대		40대		50대	
		소유 개수	비율 (%)	소유 개수	비율 (%)	소유 개수	비율 (%)	소유 개수	비율 (%)
속옷의 종류									
	Q	3.28	20.9	4.45	25.8	5.27	22.0	3.81	21.0
	R	2.04	13.0	3.0	17.4	7.40	30.9	4.14	22.9
	S	3.00	19.1	4.28	24.8	4.59	19.1	4.86	26.9
	T	7.41	47.0	5.54	32.0	6.72	28.0	5.29	29.2
합 계		15.73	100.0	17.27	100.0	23.98	100.0	18.1	100.0

선 분야에도 한층 고조된 긴장감을 야기시키고 있어 본 논문에서는 세계시장에서의 우리나라 의류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 속옷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 소유실태, 속옷 종류별 소재 내용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속옷을 입었을 때의 정전기 발생에 대한 반응에서는 정전기 발생이 비교적 일어나지 않는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으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0.1%내에서 유의적인 차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소재별 내역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먼 섬유뿐 아니라 정전기의 발생율이 높은 면과 화학섬유와의 혼방제품 및 새로운 소재에 대한 적응력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떨어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봉제 강도에 대해서는 20대와 50대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옷을 소지

하는 기간이 50대보다는 20대가 짧아서 20대에서는 봉제의 문제가 생기기 전에 구매하기 때문이 아닌가 보여진다. 또한, 땀의 흡습성 등 세탁 후의 형태 변화에 대한 만족도 보다는 디자인 및 종합적 평가에서는 연령에 구분없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내고 있다. 이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우리나라 속옷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은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으나 만족도가 높고 경쟁력 있는 상품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2. 속옷의 소유개수에서 Slip류는 20대가 1.7개, 30대가 3.1개, 40대가 3.3개, 50대가 3.9개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평균 소유 개수가 증가하고 있다. 양말의 소유개수는 20대가 7.4개, 30대가 5.5개, 40대가 6.7개, 50대가

5.3개로 20대에서의 양말의 소유개수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또한, 20대는 양말 소유개수가 가장 크게 나타났을 뿐 아니라 양말·스타킹류의 전체 소유개수에 대한 양말의 소유 비율이 47.1%로 30대의 32.0%, 40대의 28.0%, 50대의 29.2%와 비교할 때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상의의 착용방법에서는 끈이 달린 브래지어와 소매 없는 상의 Style의 착용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하의의 착용방법은 20대에서는 팬티→거들→양말의 착용방법이 30대 이후는 팬티→거들→스타킹의 착용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겉옷의 착용방법에서 20대에서는 바지차림 유행으로 인한 양말의 착용 증가로 보여지며 30대에서는 Slip류 소유 개수가 연령 증가에 따라 증가함과 함께 스커트 차림이 아직 일반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4. 속옷의 소재로써 면섬유 제품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면과 합성섬유의 혼방제품도 일반화 되고 있는 경향이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우리 나라 속옷의 대한 소비자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보통이상의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지만 외국 상품과 비교하여 경쟁력 있는 상품개발을 위해서는 겉옷의 유행과 맞추어진 디자인 개발이 요구되며 연령에 따른 소비자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났으므로 연령에 따른 마케팅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최근 일본 속옷업계에서는 보온성과 쾌적함을 추구하는 각종 기능성 특화 상품에 대해 의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소비자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에 대한 욕구는 어느 때보다 고조되어 있으며 특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방한·보온 등 기본적인 기능외에 특화 기능을

추구하는 다양한 상품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소재에 따른 인체 생리적 반응에 대한 연구를 통해 건강을 증진시키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속옷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Holies, N. Rs, De Martino, R. N, Yoon, H. K, Buckley, A., Becker, C.L. and Jackson, W., *Textiles, Res. J.*, 54(11), 1984.
2. 한명숙, 복식명칭 활용론적 연구(속옷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5(4), 1997.
3. 김선우, 한국여자내의 문화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1(5), 1997.
4. 김순분의 1인, 여성속옷 착용에 관한 연구, 가정생활연구, 대구대학교 가정생활연구소, 5, 1991.
5. 김주애, 시대변천사에 따른 속옷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5(4), 1997.
6. 三平知珪 外 5人, 下着の着心地に関する研究, 繊維製品消費科學, 8(4), 1967.
7. 中橋美智子 外 4人, 婦人下着の着方に關する研究, 日本家政學會誌, 19(1), pp.31-38(1968).
8. 임순, 테니스웨어 설계에 관한 연구 I, 인천대논문집, 20, 1995.
9. 임순, 테니스웨어 설계에 관한 연구 II, 인천대논문집, 21, 1996.
10. 北田總雄, 衣生活調査法の考え方と進め方, 日本衣生活研究, 9(9), 1986.
11. 坂根慧子 外 4人, タオルのウェアに関する研究, 日本衣生活研究, 12(5), 1985.